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료 차액분 지원해야”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이용균 의원

이용균 의원은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10일 ‘2015년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2015년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관련하여 ‘차액보육료’는 만 3~5세 유아가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료 수입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2014년 기준으로 만3세 유아의 경우 월 54,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에는 월 43,000원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추가로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그 동안 차액 보육료를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하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유아를 맡기는 학부모입장에서는



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게 별도의 차액보육료를 부담함으로서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보육료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강북구 학부모들 또한 자가부담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북구에 지원하는 시비 차액보육료 예산은 약 1억1,800만원으로 강북구에서 정부미지원 시설 국고보조금으로 학부모부담 보육료 구비 16.5%를 지원한다면 약6,1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시가 부담하는 45.8%의 매칭비율에 맞추어 구비 16.5%를 편성하여 학부모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통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구청에서 적극 지원 검토해야...

이 용 균 의원

(새정치,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은 2015년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차액보육료’는 만 3~5세 유아가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 지원시설 보육료 수입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만3세 유아의 경우 월 54,000원, 만 4~5세의 경우 월 43,000원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추가 부담해 왔다.

이용균 의원은 그 동안 “차액 보육료를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하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유아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 이용균 의원.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게 별도의 차액보육료를 부담함으로서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보육료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강북구 학부모들은 또한 자가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

준, 차액보육료는 만3세는 월 63,000원, 만 4~5세는 50,000원이다. 서울시는 2014년 기준, 학부모 차액보육료 부담금 만3세 54,000원 만4~5세 43,000원 중 무상보육 시비 보조율 인 38.5%에 해당하는 만3세 20,000원, 만4~5세 17,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에 지원하는 시비 차액보육료 예산은 약1억1800만원이므로 우리구에서 정부미지원 시설 국고보조금으로 학부모부담 보육료 구비 16.5%를 지원한다면 약6천150만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2015년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45.8%의 매칭 비율에 맞추어 구비 16.5%를 편성하여 학부모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통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차액보육료에 대한 구비 실행 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을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jeji1718@naver.com)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로 학부모 부담 줄여야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 구의원이 지난 10일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에 대하여 5분 자유발

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차액 보육료를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하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며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유아를 맡기는 학부모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게 별도의 차액보육료를 부담함으로써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민

원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보육료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강북구 학부모들 또한 자가부담을 감당해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구에서는 아이와 학부모가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고자 “만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박경수구청장님도 영유아 무상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북구는 서울시의 2015년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45.8%의 매칭 비율에 맞추어 구비 16.5%를 편성하여 학부모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통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기 바라며 차액보육료에 대한 구비 실행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